심장이식

(롬4:9~17)

[롬] 4: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롬] 4: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롬] 4: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 4: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롬] 4: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롬] 4: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롬] 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심장이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심장이식 수술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병든 내 심장을 떼어 내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대신 갖다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식 수술은 뇌사자로부터만 심장을 기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나 눈 같은 것은 살아 있는 채로 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 줄 수가 있지마는, 심장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인 사람이 기증을 하게 될 때에, 그 심장을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없는 동안이 있는 거예요.

이식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인공적으로 심장펌프기 같은 것으로 피를 돌려서 한 4~6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그 동안에 심장이식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1967년부터 이 심장이식 수술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의 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80%, 또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65%, 10년 동안은 45% 밖에는 생존을 못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의 거부반응이,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심장이식 수술은 196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조금씩 그 심장이식 수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부터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서 진작부터 심장이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시지요?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타락과 상관없이 본래 사람이 살아 있다고 하면, 심장이식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라는 심장입니다, 마음이라는 심장.
이 마음이라는 심장을 꺼내어서 나 아닌 다른 대상에 이식을 해 놓고서야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원할 수 있게 되고, 계획할 수 있게 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심장이식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 심장의 이식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심장을 꺼내서 맡기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어떤 대상에게 예치해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심장을 다른 대상에게 이식하는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심장을 다른 대상에게 이식을 하고서야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심장을 그 곳에 두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그 대상에게 이식을 해두면, 그 곳에 심겨진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 이식하면 마음이 배고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만족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이식을 하게 되는 대상은,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애인을 사귀다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지요.
애인을 만나게 될 때, 그 애인에게 심장을 심어 놓고 애인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

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겁니다.
또, 40이 넘어가면 일입니다, 일.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심장을 일에다 이식을 해둡니다.
어떤 여자 분들은 명품에다가 자기 마음의 심장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에다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나 성공에다 이식하는 등, 심장이식을 하고서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이 심장이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내가 그 곳에 심장을 이식하면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의 이유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불만의 이유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심장을 이식해 놓은 곳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마음 심장 안으로 만족감이 원활하게 흐르지를 않는 상태, 기쁨의 피가 자꾸 막혀버리는 이게, 바로 거부반응이고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심장을 이식한 곳에서 상황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자식에게 심장을 이식했는데 자식의 상황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거부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식해 놓은 내 마음 심장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불만이 느껴지면서 불행이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심장을 이식한 이후, 다시 말하면 믿음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야 행동할 수 있고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행위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 마음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께 마음의 심장을 이식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가 마음의 육신을 움직여서 이르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믿음은 언제나 행위 이전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 자체로서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자기 이 마음 자신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아서 마음을 준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단지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피상적인 이해,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축복을 누리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서 나의 현실로 삼기에 믿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너무나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 믿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제국 안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야 가능했던 일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교회에 교적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믿음생활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례교인 증명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절실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이후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에서 최초로 하나님에게 심장을 이식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하나님에게 심장을 이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가족에게 마음의 심장을 이식하고 살 때, 아브라함은 아내도 포기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를 미리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27장이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고 살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터전과 사업의 부흥과 재물에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고, 그것들로부터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위해 살아갈 때, 혼자만 하나님께 심장을 이식해 놓고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과 할례언약을 나중에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혈통상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사도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께 마음 심장을 이식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챙기려 했던 겁니다.
그 약속이 마땅히 자신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과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후손들 중에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뭐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했어요.
할례와 율법과 같은 행위 이전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단계이다,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의 단계.
그러면 혈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혈통도 행위와 한 차원에 있는 육신에 속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피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혈통상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생기는 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혈통이 어떤 혈통이고 어떤 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지요.

도대체 믿음에서 무슨 피가 생겨난다는 것인가?
믿음에서 피가 생기고 그 피가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마음을 꺼내서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 심장을 이식하는 겁니다.
마음 심장을 꺼내서 다른 대상에게 이식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만족입니다,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마음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이때, 내 마음 심장이 이식되는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 심장 안으로 피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쉬울 거예요.

돈에다가 우리 마음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퍼집니다.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픈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든지, 슬픔을 얻든지, 만족을 얻든지, 불만을 느끼든지, 염려를 하게 되든지 감사를 하게 되든지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속의 피의 성분을 결정하는 게, 내가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내 마음 심장 안으로 피의 성분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에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 가지고, 건강에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으면, 내 건강이 나쁘면 마음이 안에 슬픔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건강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분이 마음 안의 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으면, 자녀의 상태가 좋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자녀의 상태가 나쁘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성분이 흐르고 있는 피가 마음을 지배하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마음을 이식해 놓든지, 그 이식해 놓은 그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 속에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만족과 행복,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성분들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심장 안에 흐르는 모든 기쁨과 행복과 불행의 피의 성분은,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은 그 대상이 결정하기 때문에 A형, B형, O형, AB형이 아닙니다.
A형, B형, O형, AB형은 육체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돈 형, 권력 형, 건강 형, 자녀 형, 명품 형 등등의 피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같으면 부흥 형, 아니면 교회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양육 형 피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에 의해, 마음의 혈통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우선적인 조건이라 확신하고, 마음 심장을 돈에 이식한 모든 사람이 한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라고 믿고, 마음 심장을 자녀에게 이식한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한 혈통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대권에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 다니는 뱀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혈통을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유대인이라지만, 마음 심장을 이 땅 위에 있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이식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려면 마음 심장에 흐르는 피가 성분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식한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 심장을 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오직 단 한 분 여호와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의 터전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이식한 결과로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게 떠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아내를 마음에서 먼저 버리고 나서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사람이었기에, 삶의 터전인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손아래사람인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선택할 기회를 양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주실 복을 약속해 주셨지마는, 아브라함의 관심은 언제나 그러한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심장에 흐르는 피의 성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마음에 기쁨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마음에 걱정과 염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땅이야 어떤 땅이 주어든지 간에, 삶의 터전이 안정된 것을 버리든 안 버리든지 간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아내를 버려야 된다면 버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 심장을 이식해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혈통상의 후손이란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지마는, 마음 심장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 이식해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 피의 혈통이고, 권력 피의 혈통이고, 이 나라나 선택받은 민족의 나라로서 모든 나라 위에 설 것이라는, 나라 피의 혈통의 후손들이었지, 결코 하나님께 심장을 이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격을 잘 살펴보면, 진정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의 상속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요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대한 깊고 깊은 이해를 설파하면서, 갈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게 될 때라야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 심장에 이식이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이식하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심해서, '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마음 심장을 이식해야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삼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무리 결심해도 되는 일이 아닌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 모~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잡아 당겨서, 나를 속이는 모든 것들, 그것에 마음을 이식해 놓으면, 행복이 주어질 것 같고, 기쁨이 주어질 것 같고, 만족이 주어질 것 같은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로 이식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장이 이식되어지게 될 때, 영원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 심장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식되어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내 마음 속에 흐르는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피가 아브라함 속에 사천 년 전에 흘렸던 그 피와 동일한 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이외에 사업에, 돈에, 자녀에, 숫자적인 부흥에, 아니면 명품에

마음 심장을 이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청산해 보면 기쁨과 행복과 참 만족보다는 불만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마음의 심장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이식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